먼저 충만케 되자 그러면 맡겨진다

(사무엘상 2:1~11)

1.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4.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먼저 충만케 되자 그러면 맡겨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먼저 충만케 되자 그러면 맡겨진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미국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기에는 아마도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의 출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는 그보다도 기숙사가 있는(Boarding School) 고등학교 출신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조지 부시 가문의 두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 모건스탠리를 설립한 해럴드 스탠리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명문 보딩 스쿨을 졸업한 대표적인 유명 인사들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은 명문 보딩 스쿨에서 나온다는 것인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광고를 하나 보았습니다. 스위스의 교육과 휴양 도시로 유명한 레장(Leysin)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딩 스쿨인 레장 아메리칸 스쿨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메리칸 스쿨이라서 그런지 미국의 명문대학을 목표로 하여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레장은 제네바와 베른, 로잔으로부터 90분 이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레장 아메리칸 보딩 스쿨의 관계자가 2월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11학년 학생 가운데 전 세계에서 세 명을 뽑는데, 이 세 명의 후보자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도 갔고 우리나라에도 왔습

니다. 진짜 내막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광고대로라면 레장 보딩 스쿨이 전 세계 효시와 마찬가지이고, 졸업하면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로 진출하게 되고 전액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다 한번 꿈꿀 만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자식이 능력 있고 재정적 능력만 된다면 이러한 명문 보딩 스쿨에 자식을 맡기고 싶은 인지상정의 마음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삼년 동안 젖을 먹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유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수유기간이 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중앙 성소의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르는 한나의 노래와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의 한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이 종종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괴로워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충만함은 사무엘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충만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돈 때문에 끙끙거리다가 숨이 트여지면 마음이 충만해지고 또 돈이 없어지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병이 들었다가 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충만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건강이나 형통 때문이라면 돈 충만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세상일의 형통 충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 충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두세 시간씩 경배와 찬양을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 찬양을 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럴 때에 참 진리와 참 생명이 없는 일반 종교로 떨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한나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로 인해 기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뿔을 명예나 권위나 권세나 힘을 상징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뿔은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서 뿔처럼 툭 불거져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높아졌다’는 것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높아지거나 건강하면 즐거움의 뿔이 생기는데, 한나의 마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서 마음에 뿔이 생겼고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것은 사무엘을 낳아서 기쁘다고 브닌나 앞에서 자랑하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쟁적 차원으로 말하자면 브닌나는 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사무엘을 낳은 김에 한 세 명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나를 경직시키고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존심을 빼앗아

가고 모멸감을 안겨주고 소중한 것들과 생명과 존재의 이유를 빼앗아가므로 주눅 들고 경직되게 만드는 자인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다 보니 원수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사도 경우에 겁에 질려서 문을 꽁꽁 닫고 살던 자들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자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산헤드린공회에 잡혀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으나 원수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개의치 않는데 원수가 내게서 빼앗아 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치는 원수들이 전혀 마음에 거슬리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내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의 특징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중인에도 그 마음속에는 무엇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원수들 앞에서 입을 크게 여는 것이고 한나가 이렇게 충만해진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히 교만하고 오만한 것'은 '용사의 활은 꺾이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용사의 활이 꺾이는 이유는 오만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라는 말은 돈을 믿어서 기뻐했던 것인데 오만한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먹이는 3년 동안 사무엘로 충만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가 서원기도를 드리고 사무엘을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데리고 가서 서원을 충실하게 준행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과연 헌신이고 충성이냐는 것인데 아닙니다. 중앙 성소는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시84: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할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는지 그것이 문제이지 돈이 든다면 돈을 써서라도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헌신 충성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하시는 성소는 슈바이처 박사가 목숨 걸고 가서 선교해야 했던 아프리카 밀림 속 오지가 아닙니다. 스위스에 있는 레장 아메리칸 명문 보딩 스쿨보다도 더 좋은 곳이 성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것도 11학년이나 돼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선발해가는 것이 아니라, 젖 떼고 4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귀한 자식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거나 투자기관에 맡기고 주식에 투자해서 증대시키려고 하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의 조물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믿을만하시고 지혜와 권세가 무한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맡아주실까 문제지 맡아만 주신다면 내 인생에서 소중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맡기질 못합니다.

본 적도 없는 스위스의 레장 보딩 스쿨이나 미국의 보딩 스쿨에는 돈을 보따리로 가져다주면서 아들딸을 맡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 분이 맡아주시겠다고 하시고 본래 당신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못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서울대학이나 사법고시나 대기업이나 훌륭한 가문의 사위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전액 장학금이 아니라 평생에 먹고 살 것과 쓸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맡기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한나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만 사무엘을 맡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충만이 아니라 사무엘 충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앞서 봤듯이 한나가 기도를 드릴 때에 물두멍과 번제단을 넘어가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물두멍과 번제단은 죄를 지어서 더러운 것과 그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에는 마음에 있지도 않은 자식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이것이 바로 더러움이고 죄입니다. 이렇게 깨달아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죄의 뿌리가 있는 내가 죽습니다.
'심정을 통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파크'인데 '양동이의 물을 쏟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양동이면 자식에 대한 생각이 물처럼 가득 담겨져 있던 것을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충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무엘을 키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동선을 따르는 삶이고 충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의 문제가 있으면 한나가 자식에 대해 가졌던 마음처럼 커지고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에 당장 병원에 가기보다 우선 십자가를 붙잡고 샤파크(쏟아버리고) 내가 내 몸에 대

해서 죽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내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버지께서 나누시는 교제에 참여하는 기도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하늘에서의 교제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한나가 경험한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짓눌리던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마음을 쏟아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서 그 기쁨이 뿔처럼 솟아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기뻐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 받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비로소 내 몸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사무엘처럼 성소에 데려가서 맡기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 아들딸이나 소중히 여겼던 돈이나 나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저절로 맡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맡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병원으로 데려가시면 가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신다면 나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내 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마음으로 붙잡고 그것들 때문에, 한나의 첫 번째 기도처럼 괴롭고 슬퍼하며 걱정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물두멍을 지나서 이 죄악 된 내가 번제단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그토록 아끼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문 보딩 스쿨로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돈도, 재산이 있든 없든, 사업도, 내 가족도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지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라고 하신 것처럼 평강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한나가 하고 있습니다.
충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첫 번째 기도의 상태처럼 자식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식을 낳고 싶은 생각으로 충만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충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돈을 맡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돈을 맡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쏟아버려야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명문 보딩 스쿨에 입학시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충만해진 마음을 쏟아 붓게 하시고,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최고의 명문 보딩 스쿨인 하나님의 뜻 안으로 입학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